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1. 농업정책

### □ 농업정책

-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연 유기농법 (로동신문 8.6)
  -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유기농법을 알곡증산의 열쇠로 보고 도의 특성에 맞게 연구도 입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
  - 강원도 농촌에서 후민산염 또는 흙보산비료와 혼합한 것을 종자처리에는 물론 모판, 포전에 밑비료와 덧비료로, 이삭비료로 이용한 결과가 좋았음. 토지가 개량되어 땅의 지력이 높아졌으며, 특히 토양의 부식질 함량을 높이고 산성화를 막음.
  - 시, 군 뿐만 아니라 각 농장에서도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려놓고 니탄, 부식토, 소매설물 등에서 후민산염을 생산하여 종자처리와 농작물생육단계에 맞게 사용함. 후민산염을 질소비료 또는 농약과 섞어 잎에 분무하여 비료 및 살충효과도 보았음.
  -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후민산염을 함께 쓴 많은 농장들은 지난해 날씨가 흐리고 냉해가 심했지만 곡식들이 피해를 입기는커녕 전해보다 천알당 무게가 더 늘어남. 올해에는 농작물이 봄철부터 40여일 간 지속된 가뭄의 피해를 받지 않음.
-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로동신문 8.12)
  - 최근 전 지역에서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논벼고온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어린 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 물알드는 시기에 고온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함. 특히 이삭뻗 후 7~10일 간은 논벼생육에서 고온 위험기인데 이때 고온이 지속되면 눈젖세포의 증식이 잘되지 못하며 논벼가 급격히 노화되어 여문률과 천알무게가 심하게 떨어짐.
  -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논물관리대책을 잘 세워야 함. 낮에 더워진 물은 저녁에 빼버려 밤사이 땅온도를 낮추며 흐름식물대기를 하여 물온도를 낮추어야 함. 이와 함께 포화수식 및 간단물대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땅속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어 뿌리썩는 현상을 막고 고온피해를 덜 받도록 해야 함.
  - 고온현상으로 강냉이수정이 잘되지 않는 조건에서 수정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또한 높은 온도 및 습도조건에서 발생하는 병해충피해막이대책도 세워야 함. 논에서는 포화수식물대기방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물온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함. 밭에

---

서는 둘레배수로치기를 잘하고 후치질을 다시한번 깊숙이 해주어 이랑을 높여주어야 함.

## 2. 벼농사

### 풀베기

- 하루 평균 60여만 톤의 풀을 베다 (로동신문 8.2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요즘 매일 60여만 톤의 풀을 베어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 매일 15만 톤 이상의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군의 하루 풀베기실적은 1만 톤을 훨씬 넘어섬. 그리하여 군에서는 풀베기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
  - 자강도에서는 각종 선전선동수단을 이용하여 풀베기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음. 그리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하루 실적이 1.3배 이상 높아짐.
  - 평안북도에서도 풀베기 성과를 날로 확대해나가고 있음. 정주시에서는 매일 7천 톤 이상의 풀을 베어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각지 농업근로자들은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풀을 베는 족족 날라다가 물과 소석회를 뿌리면서 풀거름을 질 좋게 생산하고 있음.

## 3. 밭농사

### 가을걷이

- 밀, 보리 가을을 다그친다 (로동신문 8.23)
  - 량강도에서 밀, 보리수확이 한창임. 도의 농업근로자들은 열정을 발휘하여 밀, 보리 가을을 빠르게 해나가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밀, 보리수확을 빨리 하면서도 한알의 낱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운데 맞게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주고 있음.
  - 대흥단군에서는 군농업경영위원회가 정한 목표에 따라 지난해보다 앞당겨 시작한 밀, 보리가을이 일정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 삼지연, 풍서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농업근로자들도 경쟁적으로 가을걷이를 실시하고 있음. 갑산, 삼수, 운흥군의 일군들도 밀, 보리수확을 위한 사업을 잘 진행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4. 산림

### □ 나무모 생산

- 큰 성과를 내게 될 양묘장 (로동신문 8.6)
  - 대관군산림경영소 양묘장에는 근 20정보에 달하는 규격화된 포전에 잣나무, 세잎소나무, 이깔나무, 가래나무, 평양단풍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나무모가 자라고 있으며 한해에 나무모가 수백만 그루나 생산됨.
  - 최근 양묘장에 나무모온실을 새로 지었는데 이는 태양열을 이용하여 나무모생산을 집약화할 수 있게 하였음. 여기서는 나무모를 삼목의 방법과 영양단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키우고 있음.
  - 또한 회전식분무장치를 설치한 원형나무모재배장에서도 삼목의 방법으로 수종이 좋은 각종 나무모를 수십만그루 키우고 있음. 회전식분무장치를 받아들인 이후부터 종자와 노동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기일을 훨씬 앞당기게 됨.
  - 특히 한해에 김을 10회 이상 매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가림을 해주면서 많은 품을 들여야하는 창성이깔나무모도 여기서는 손쉽게 키우고 있음.
-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로동신문 8.8)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연석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0년 동안 전국적으로 나무모밭면적이 수천정보 더 늘어나고 200여 개의 양묘장에서 회전식 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 생산방법을 도입하여 해마다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고 있음.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 한 해에 수천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음. 양묘장에서는 백수십 정보의 면적에 채종구, 풍토순화구, 품종보존구, 파종구를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공업화, 과학화, 집약화하고 있음.
  -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의 시, 군양묘장을 비롯한 각지 양묘장에서 회전식 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나무모를 키워내고 있음.
  -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시, 군을 비롯한 각지 양묘장에서 새로운 수종의 포플러나무와 버드나무, 왕밤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음.

## 5. 기타 보도 동향

### □ 홍수

- 큰물피해 복구사업에 온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8.4)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7월 29일부터 내린 많은 비로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도로와 다리, 철길, 강하천제방, 전력망, 통신망이 파괴되었으며 수천정보의 농경지

가 침수되거나 매몰됨.

- 피해를 많이 입은 안주시 일군들은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시책임일군들이 피해지역을 한 개 대상씩 맡아 복구에 힘쓰고 있음.
  -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데 힘을 넣고 있음. 식량과 먹는물, 의약품, 생활필수품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피해를 입은 살림집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다시 건설할 것은 빠른 기간에 건설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또한 파괴된 도로, 다리, 철길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침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큰물피해 복구사업 힘있게 전개 (로동신문 8.8)
- 함경남도에서 살림집과 도로, 철길, 농경지, 제방 등을 복구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단천시는 물에 잠겼던 수백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보수하고 인민의 생활을 안정시켰으며 배수장의 양수기에 만부하를 걸어 침수된 농경지의 고인 물을 퍼냄.
  - 피해가 큰 룡양광산에서는 수백㎡의 토량을 처리하여 생산계통과 구내선철길복구를 끝내고 파괴된 살림집과 학교, 생산건물에 대한 보수를 마감하고 있음.
  - 요덕군과 수동지구에서는 튼전기계와 역량을 집중하여 수십 km의 도로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에 자재와 물자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 현지도

- 성천군과 신양군의 큰물피해복구상황 현지파악 (로동신문 8.1)
- 최영림총리는 성천군의 큰물피해복구상황을 현지에서 파악함.
  - 총리는 성천읍지구와 읍협동농장, 룡흥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부문별 피해상황, 토지 유실 및 매몰실태와 큰물피해복구진척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지역 주민을 위로함.
  - 또한 총리는 신양군의 큰물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높은 산과 골짜기들이 많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방야계공사를 질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했으며 필요한 대책을 세움.
- 안주시 큰물피해상황 현지파악 (로동신문 8.5)
- 최영림총리는 안주시의 큰물피해복구상황을 현지에서 파악함.
  - 안주시는 최근 폭우로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대부분의 공공건물, 산업시설이 침수, 파괴되었으며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알곡작물에 대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 특히 상하수도망과 전력계통이 마비되어 주민세대의 먹는물과 전력 보장이 어렵게 됨.

- 총리는 큰물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긴급협의회를 열어 피해복구에서 순서를 바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함.
- 향산군과 구장군의 큰물피해 복구상황 현지파악 (로동신문 8.24)
  - 최영립내각총리는 향산군과 구장군의 큰물피해상황과 복구상황을 현지에서 파악함.
  - 향산군과 구장군은 폭우로 저수지와 강하천제방이 터져 수백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다리, 관광 및 등산도로, 철길로반이 파괴되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심한 피해를 입음.
  - 현지에서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폭우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방도와 복구사업에서 순서를 바로 정하며 전망적인 견지에서 국토설계를 과학적으로 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됨.
  - 또한 내각을 비롯한 관련 단위에서 복구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제때에 생산 보장하고 지방의 예비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였음.